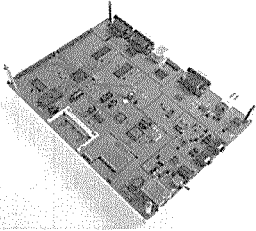


MPEG4 코덱보드 개발

도원텔레콤



도원텔레콤(대표 이철호)은 영상이나 음성 신호를 MPEG4 신호로 바꿔주거나 MPEG4 신호를 다시 일반 영상신호나 음성신호로 복원해 주는 MPEG4 코덱(CODEC) 보드인 '도원 EVM보드'를 개발, 시스템업체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MPEG4보드는 MPEG2기반의 압축보드보다 최대 5배 이상의 신호압축률을 보장, 작은 저장공간을 이용하고도 많은 음성 및 영상 신호를 기록할 수 있어 보안·감시·인터넷영상채팅 분야에서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원텔레콤이 개발한 EVM보드는 CCD·CMOS, NTSC, 오디오 등의 영상 및 음성 인터페이스와 이더넷, USB, 2-UART 등의 통신 인터페이스, 스마트미디어, 콤팩트 플래시카드 등의 자체 저장매체를 지원한다.

이번 EVM에 채택된 디지털신호처리기(DSP)는 임베디드 리눅스를 운용체제로 채택, 기존의 리눅스 커널에 비해 용량이 작고 DSP 개발에 용이하도록 최적화해 있다.

도원텔레콤은 보안·감시·영상채팅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MPEG4 관련 솔루션업체에 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0.13 μ m 초미세 공정기술로 SOC 양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SOC(System On Chip, 복합칩)' 반도체를 올해 초부터 0.13 μ m(머리카락 800분의 1 크기) 초미세 공정기술로 양산한다.

0.13 μ m 공정기술은 칩 사이즈를 종전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 동작속도를 배가까지 향상시키며 소비전력을 33% 감소시키는 공정개선 효과를 거둔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범용에서부터 초고속용, 저전력용, 초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SOC칩, 특히 모바일 통신기기와 디지털미디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됐다.

삼성전자는 현재 PDA 등 휴대기기용 SOC칩과 네트워크용 SOC칩, CPU 탑재 SOC칩등 20여종의 차세대 SOC칩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D램과 플래시 공정 복합화를 추진, 차세대 SOC 제품의 경쟁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2005년까지 SOC제품으로만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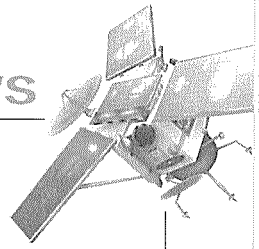
암흑서도 촬영할 수 있는 보안 카메라 출시

아이에스티

암흑 상태에서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한 CCTV용 감시카메라가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적외선 영상기술 전문업체 아이에스티(대표 김용석 <http://www.istpage.co.kr>)는 완전 암흑 상태인 0룩스(lux)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보안장비용 카메라인 암시(AMSEE)를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이에스티는 특정 광선의 방향특성을 변화시키는 독자기술과 적외선의 수렴성·직진성·투시력을 크게 하는 혼변조 방사기술을 적용해 기



존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

기존 암흑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는 고가 부품을 사용하는데다 이를 수입할 때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군 사용이나 열영상 촬영 등의 특수용도에 머물러 왔다.

아이에스티는 또 특수한 전하결합소자(CCD)를 이용, 선명도를 높임으로써 일반 카메라가 무월광이나 안개속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보다리 선명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산으로는 처음이다.

특히, 기존 TV의 경우 화면 사이즈가 한정돼 있고 설치공간 및 제품부피로 인해 이동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LCD프로젝터는 무게가 9.6Kg에 불과해 원하는 장소 어디에나 최소 30인치에서 최대 300인치 크기의 초대형 화면을 통한 실감있는 가정 영화관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이 제품은 고해상도(WXGA) PC 신호 입출력도 가능해 사무업무 프리젠테이션용은 물론 인터넷용, 게임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홈시어터용 와이드 LCD프로젝터 출시

LG전자

세계 최 소형 IPv6 라우터 국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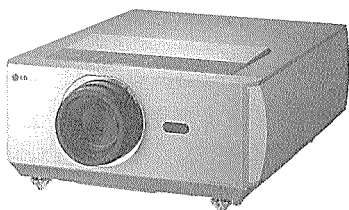
위즈정보기술

LG전자는 디지털TV 방송 시대를 맞아 가정극장(HomeTheater)용 LCD프로젝터(모델:RL-JA10)를 개발, 지난 12월부터 판매하였다.

이 제품은 가로, 세로 화면비율이 16대 9 와이드로 일반극장 화면크기와 비슷하고 고선명(HD) 화질을 구현함으로써 가정용 디지털TV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56인치 고선명(HD) 디지털TV와 비슷한 500만원 전후 가격대에 판매키로 함으로써 기존 디지털 TV와 함께 대체 수요도 예상된다.

고선명 와이드 화면의 가정극장용 LCD프로젝터가 개발, 출시되는 것은 이번 LG전자 제품이



e비즈니스 솔루션 전문업체인 위즈정보기술(대표 장경태 <http://www.wizit.com>)이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 기반의 초소형 라우터(제품명 netWIZ v6)를 발표했다.

위즈정보기술이 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일반 하드디스크 크기 두께의 초소형 라우터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IPv6 라우터 중 가장 작은 크기다.

운용체계로는 자체 개발한 실시간 리눅스 운용체계인 '블럭스(Blux)'가 탑재됐으며 아직 IPv6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 IPv4-IPv6 및 IPv6-IPv4 주소변환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향상된 보안계층인 'IPsec'을 지원하며 이미 구성되어 있는 IPv4 네트워크에서 간단한 설치로 IPsec 보안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소체계의 터널링과 더불어 향후 자연스러운 IPv6 주소체계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도 장점이다.

초고속 L-MOS 개발

KEC

KEC는 휴대폰과 PDA(개인휴대단말기), DVD 등 소형전자제품에 쓰이는 핵심반도체인 초고속(Super High Speed)급 L-MOS(로직 금속 산화물반도체)를 독자개발해 지난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초고속급 L-MOS는 기존의 제품보다 배 이상 빠른 동작속도를 갖고 있으며 크기는 2.1×2.0mm에 불과해 표면실장형(SMD) 트랜지스터와 비슷한 정도의 소형 제품이다.

KEC는 이번 제품의 개발로 도시바 등 외국업체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L-MOS 제품의 풀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L-MOS는 논리회로가 적게 들어있는데다 극소형 패키징 기술에 의한 조립으로 크기를 일반 로직 집적회로(IC) 제품에 비해 최대 20분의1까지 축소할 수 있어 이동통신단말기나 캠코더 같은 경박단소형 제품에 적합하다

초고속 B-WLL 시스템 개발

ETRI

20Mbps급의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지국과 사용자를 잇는 가입자 회선을 현재의 유선에서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광대역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을 개발, 20Mbps급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초고속국가망이 구축된 국내 실정에 맞게 기지국까지는 유선으로 설치된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기지국과 가입자 사이를 무선 디지털 신호로 연결하게 된다.

가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보전송은 10Mbps, 정보수신은 20Mbps의 속도를 낸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손쉽게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최초 IPv6 IP 발급 서비스

한인터넷

인터넷회선서비스(ISP) 업체인 한인터넷(대표 김명락 <http://www.haninternet.co.kr>)이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 아키텍처인 'IPv6'(인터넷프로토콜 버전6) 상용화 전단계인 인터넷프로토콜(IP) 발급 및 관련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시한다.

한인터넷은 지난 6개월 동안 IPv6 상용 서비스를 위해 IPv6 호환 망연동 및 백본 라우터, 가입자용 단말 라우터, 고객지원 홈페이지 등의 준비를 거쳐 지난 12월 17일부터 IPv6 IP 발급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IPv4 IP 라우팅 방식에 IPv6 IP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인터넷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NLA(Network-Level Aggregation) 블록을 테스트용으로 할당받아 가입자에게 SLA(Site-Level Aggregation) 블록단위로 라우팅해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IPv6호환 라우터를 구매하거나 기존 라우터를 IPv6용으로 교체를 요청하면 되며 추가비용은 없다.